

자동차

Car

“고유가도 거뜰” .. 경차 납시오!

유가 급등·경기침체 맞물려 경차·RV 판매량 사상 최고 평균차령 7.3년 오래 타기도

국제유가 급등 및 경기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경차와 RV차량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승용차의 평균 차령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자동차 구매 패턴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경차 기준을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아차 모닝이 경차에 포함되고 일본의 경차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등 '경차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소형차보다는 경차 선호=1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는 3만9천969대가 팔려 소형차(3만8천533대)를 앞질렀다. 지난 2000년 이후 경차 판매가 소형차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9월의 경우 소형차는 경차(2만8천460대)보다 1만7천여대 가량 많은 4만5천634대가 팔렸다.

특히 시판중인 경차는 GM대우의 마티즈 1개 차종에 불과한 반면, 소형차는 현대차의 클리앙·베르나, 기아차의 모닝·프라이드, GM대우의 쉐보레·칼로스(현재는 쉐보레) 등 6개 차종에 달한다. 이 차종에서 소비자들의 '경차 몰린현상'을 엿볼 수 있다.

마티즈는 또 지난 11월까지 4만8천491대가 팔려나가면서 올해 국내 판매 5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39% 급증한 수준이다. 마티즈는 국내 유일의 경차로, 국내에서만 50만대 이상 팔린 국민차다. 이 차의 수동변속차량의 연비는 l 당 20.9km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가운데 연비가 가장 높다.

중형급인 아반떼나 SM3·라세티 등의 연비가 12.6~13.8 km/l 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료소모가 훨씬 적다. 베르나와 모닝 등 소형차들도 15.4~15.6km/l 의 연비로 마티즈에 버금가지만 경차의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경쟁력



GM대우 마티즈

이 떨어진다.

여기에 국내 소비자들은 소형차와 준중형차의 연비가 거의 없는 만큼 성능·속도 등을 고려해 준중형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기름값을 아끼려면 경차, 성능을 생각하면 준중형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모닝은 경차 편입을 앞두고 소형차 가운데 유일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차는 올들어 10월까지 판매실적이 2만2천209대에 달하면서 소형차의 대명사인 프라이드(2만2천39대)를 앞질렀다. 내년 1월부터 경차 적용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1천cc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모닝도 경차로 분류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일본의 경차도 국내에서 판매됨에 따라 경차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우자동차판매가 국내 판매를 검토중인 미쓰비시 'i'는 지난해 '일본 굿 디자인상'을 받을 만큼 경제성과 디자인이 뛰어나다. 이 차는 마티즈보다 폭이 2cm 좁지만 최대 65마력까지 낼 수 있어 힘은 더 세다. 지난해 일본에서 3만6천대가 판매됐다.

◇기름값 오르면 RV 판매도 '증충'=유가 급등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RV) 판매 신장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RV차량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고유가 시대에 저렴하게 차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RV 대부분은 휘발유 대신 경유나 LPG를 사용하며, 연비도 뛰어나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모든 RV차량 판매가 10월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는 지난 10월 1천315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달인 9월(1천114대)에 비해 18%(205대) 늘어난 것으로, 8월(1천281대) 이후 석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스타렉스도 10월에 4천288대가 판매돼 9

월은 10월에 2천462대가 팔려 지난 5월(2천791대) 이후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의 신형 'CR-V'도 10월에 366대가 팔려 지난해 10월 출시 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가족 나들이에 적합한 레저차량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었다는 시각도 있다. RV차량은 실내 공간이 넓은 데다 좌석을 조절할 수 있어 각종 장비와 짐을 실기에 유리하다. 향후 국내 레저차량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도 신차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르노삼성차의 'QM5'를 비롯, 내년 초에는 기아차의 '모하비'를 선보인다. 폭스바겐코리아와 포드코리아도 각각 소형 SUV인 '티구안'과 7인승 다목적 차량인 'S-맥스'를 판매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승용차 평균 나이도 '사상 최고'=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승용차의 평균 차령(차량의 나이)은 7.3년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승용차의 차령이 높아진 것은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차량의 내구성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승용차의 차령은 2000년 5.7년에서 지난해에는 7.1년까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7년을 넘어섰다. 이는 미국(9.1년)이나 프랑스(7.7년)에 비해서는 낮지만 영국(6.8년)이나 일본(7.1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또 한국 승용차 중에서 차령이 10년 이상된 차도 전체 등록 차량의 29.7%(483만대)에 달했다. 이는 2000년(5%)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15년 이상된 '고령 승용차'도 2000년 2만5천대에서 올해는 36만대까지 늘어나면서 무려 13배 이상 급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현대 유럽 전략 차종

'i30(아이씨티)' 판매

현대자동차는 유럽 전략 차종 'i30(아이씨티)'의 2.0 모델을 지난 13일부터 판매 중이다. 지난 7월 출시된 'i30(아이씨티)'는 8월부터 월평균 2천대 이상의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또 이 차는 국내 자동차시장에 해치백 열풍을 일으키며, 아반떼에 이어 준중형급 판매 2



위로 올라섰다.

'i30(아이씨티)' 2.0은 최고 출력 143마력, 연비 12.4km/l (자동차연비 기준)의 2.0 베타(B) II 엔진을 탑재했다. 판매 가격은 ▲2.0 럭셔리 1천605만원 ▲2.0 프리미어 1천735만원 ▲2.0 엑스트림 1천905만원 등이다.

현대차는 이번 신모델 출시로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는 한편, 타겟 고객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로 2008년에는 연간 판매목표 3만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기아 모닝

월보다 20.4%(727대) 급증했다.

기아차의 카렌스는 10월에 3천325대가 판매돼 9월(2천474대)에 비해 34.4% 늘었으며, 카니발도 2천89대로, 전달보다 25.2% 증가했다.

쌍용차의 SUV인 렉스턴은 10월 들어 전달보다 178대 많이 팔렸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액티언 스포츠의 판매량도 106대 늘었다. GM대우의 유일한 SUV인

수 있는 '적립식'으로 나뉜다.

여러 주유소에서 번갈아 기름을 넣는다면 현상 '할인식'이 좋고, 지정 주유소가 있을 경우 '적립식'이 유리하다. 주유카드를 활용하면 l 당 40~100원을 아낄 수 있다.

▲급출발·급정거 삼가야=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대표적인 습관이 급출발이나 급정거다. 운전습관만 고쳐도 최대 50% 가량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통상 시속 60~80km로 운전하면 기름값을 절약하는 데 최상이다. 계기판 엔진 회전계의 눈금을 2000~3000rpm 사이에서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 시동을 건 후 30초~3분 정도 워밍업을 하는 것도 '유테크'의 방법이다.

▲차량 관리만으로도 기름값 절감=차량 무게가 가벼울수록 유류비가 덜 지출된다. 평소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무거운 짐 등을 내려놓으면 유리하다. 10kg의 짐을 싣고 50km를 달리면 80cc의 연료가 추가로 소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기름값 아끼기 5계명'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유테크'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카풀'이나 주유할인 혜택을 겨냥한 카드사용은 기본이고, 아예 차를 두고 출근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유가 시대의 '유(油)테크' 5계명을 소개한다.

▲차량 구입시 연비 따져야=휘발유보다 경유나 LPG 가격이 낮은 만큼 경유나 LPG 차량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최근에는 연료절감 기술을 적용한 휘발유 차도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직분사 엔진의 경우 일반 엔진보다 연비가 10% 이상 좋다. 디젤차는 휘발유 차보다 연비가 20% 이상 좋다. 자동 변속기는 단수가 많을수록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5단보다 6단 변속 기어가 기름값을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

카풀·주유 할인카드 사용은 기본 값싼 주유소 찾고 트렁크 짐 정리

▲기름값 싼 주유소 찾자=주유소별로 기름값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유소별 기름값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 비교 사이트인 '오일프라이스워치(www.oil-pricewatch.com)' 등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산업자원부가 내년에 '주유소 가격 정보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면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유카드 활용을 생활화하라=주유카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할인식'과 포인트를 쌓아 나중에 현금처럼 사용할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개강 |
|-----|-------|------|-----|
| 재직자 | 공인중개사 | 2개월 | 매월초 |
| 일반인 | 주택관리사 | 2개월 | 매월초 |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개강 |
|-----------|---------|------|--------|
| 재직자 | 컴퓨터활용실무 | 2개월 | 12월 3일 |
| 일반인 | CAD | 2개월 | 매월초 |
| | 워드실기 | 1개월 | 수시 |
| | 컴활실기 | 1개월 | 수시 |
| 정보화기초 1.2 | 5주 | 매월초 | |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료후환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향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시험대비, 동계방학 대강좌!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안내

| | | | | | | | | | | | | | |
|-----|-----|-----|-----|-----|-----|-----|-----|-----|-----|-----|-----|-----|-----|
| 행정직 | 교수직 | 관세직 | 감사직 | 법원직 | 검찰직 | 교정직 | 보훈직 | 소방직 | 전차직 | 복합직 | 토목직 | 건설직 | 물리화 |
|-----|-----|-----|-----|-----|-----|-----|-----|-----|-----|-----|-----|-----|-----|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무등,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2월 17일 주·야 (점심)반모집 (합제예알)

= 46년 전통의 무등은, 강의第一! 합격최다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17일

분제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런? | 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전문대 졸업(예정)자, 4학년 대학 2학년인 미지연, 누구나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향서점) ☎ 227-8088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재료만 선별하여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차려드립니다.

| | |
|------|-----------|
| 일출상 | ₩190,000원 |
| 일몰상 | ₩330,000원 |
| 대기죽상 | ₩880,000원 |
| 소기죽상 | ₩450,000원 |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

☎(061)383-8283
전라남도지사·품질인증업체/AS9001 인증업체
www.danyang.co.kr

직접배송